

중국 서안 구마라집 부도탑 앞에서 중국 학인 스님들이 예를 올리고 있다.



중국 서안 법문사 입구 전경. 부처님 지골사리가 봉안된 것으로 유명하다.

1천년 前 선지식들 '위법망구' 정신을 만나다

중국 선종사찰 순례

⑥ 초당사·법문사

중국 서안(西安)의 옛 명칭은 장안(長安)으로, 일반적으로 실크로드 시작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의 특산품이 이곳을 기점으로 서양에 전해졌고, 불교 구법의 통로이기도 했다.

서안에서 시작된 실크로드를 수많은 중국과 한반도의 동북아 구법승들은 인도로 가는 길로 활용했다. 지금은 키르기스스탄까지 5500km의 고속도로가 놓였지만 옛 구법의 길은 험난했을 것이 분명하다.

구법 루트로 실크로드가 활용되는 시대의 서안과 그 인근 지역은 불교 발전을 위한 교류의 현장이었다. 교류의 결실 중 하나는 역경이었다. 당시 역경사를 대표하는 인물은 현장(玄), 구마라집(鳩摩羅什), 구라나타(拘羅那陀) 스님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구마라집은 인도 대승불교 반야류 경전을 완전히 번역한 역경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역경의 역사가 숨쉬는 곳

구마라집은 요즘 말로 하면, '언어학의 천재' 정도로 생각된다. 일단 아버지는 인도 출신 승려 구마라염이며, 어머니는 구자국왕의 누이 지바였다. 어머니 지바는 한번 들은 것을 모두 기억했을 정도로 영민했다고 한다.

그런 재능을 진하게 물려받은 구마라집은 7세 때 어머니와 함께 출가하고 함께 불교를 배우고 수행했다. 계빈국 등에서 초기 경전과 아비달마의 여러 논서 등을 배운 구마라집은 20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 대승경론을 연구했다. 이런 그의 명성이 중국 본토에까지 알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당시 최첨단 학문이자 종교였던 불교의 고승을 모시기 위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382년 전진왕 부견이 자신의 장수 여광에게 구자국을 정벌하고 구마라집을 데려오게 했고, 여광은 구자국왕을 죽이고 왕명대로 구마라집을 데리고 전진으로 향했다. 하지만, 양주에 이르렀을 때 부견이 요장에게 피살돼 전진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여광은 양주를 평정하고 후량이라는 나라를 건국한다. 구마라집도 양주에서 16년 가량을 머문다.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다는 원망 때문일까. 여광은 구마라집을 매우 홀대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비구승에게 "천재의 씨를 받아둬야 한다"며 파계를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통치 사상도 기반도 없던 불안정한 나라 후량은 20년만에 후진에 의해 평정된다. 후진의 왕 요흥은 정중히 예를 갖춰 구마라집을 서안으로 모셨다.

요흥은 구마라집을 국사(國師)로 예우하고 서명각과 소요원에서 경전을 번역하게 했다. 구마라집의 역경처인 소요원 일부가 현재의 초당사다.

초당사는 서안 외각 규봉산(圭峰山)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삼론종 발원지다. 현재는 중국 한족지역 불교 전국 중점사원이자, 섬서성의 중점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돼 있다.

구마라집은 초당사에서 〈대품반야경〉·〈법화경〉·〈금강경〉·〈유마경〉·〈아미타경〉·〈미륵하생성불경〉·〈대지도론〉·〈중론〉 등 94부 425권을 번역했다. 그의 번역은 지금까지도 남아 많은 불자들이 구마라집본의 경전을 공부하고 독송하고 있다.

초당사에서 가장 주의깊게 봐야 하는 성보는 구마라집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탑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혀(舌)사리'를 모신 부도다.

구마라집은 자신의 번역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적하기 전 유언으로 "내가 한 번역이 잘못돼 있지 않다면, 다비 후에도 내 혀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若所傳無謬者 當使焚身之後 舌不焦爛)"라는 말을 남겼다. 실제 다비식 후 수습하니 오직 혀만이 남았다고 전해진다.

구마라집의 부도탑은 조형미가 매우 아름답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탑의 재질이다. 구마라집탑은 속칭 '팔보옥석탑(八寶玉石塔)'이라고 불리는 데 옥백·천정·묵흑·유황·담흥·천람·자줏빛 등 8색의 옥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구마라집이 얼마나 귀중한 인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법문사 지하궁전에서 나온 유물들. 법문사의 위상을 알게 한다.

초당사, 역경승 구마라집 주석처
12년동안 94부 425권 불경 역경
'혀사리' 부도탑서 역경 원력 느껴

부처님 손가락 사리 봉안된 법문사
탑 아래 지하궁전, 사찰 위상 짐작
현대 강원 건립… 中불교 굴기 목도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이 찾았을 당시에는 많은 비가 왔음에도 구마라집 부도탑에 예경을 드리기 위한 중국 학인 스님 순례팀들이 왕왕 눈에 띄었다. 그들도 삼론종의 시조이자 천재 역경가였던 1천여 년 전 선지식을 기리는 마음으로 초당사를 찾았을 것이 분명했다.

동서 교류의 상징, 법문사

서안에서 동서 교류의 상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은 법문사다. 당대(唐代)부터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던 곳으로 유명한 법문사는 현재 매우 크게 중창돼 있다. 본래 사찰 규모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한 현대적 보궁이 별도로 마련됐으며, 그 규모는 매우 웅대하다. 법문사 주차장에서 내려서 법문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다.

법문사의 최고 전성기는 당나라 때다. 당시에는 5000명의 승려가 수행을 했으며 30년에 한번씩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개방했는데 그 때마다 풍년이 들고 사람들은 화목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법문사에서 황제가 있는 시안으로 지골사리를 이운할 때면 그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황제도 엎드려 절을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당나라가 패망하면서 법문사는 쇄락의 길을 걷는다. 또한 1568년 지진으로 인해 진신사리탑은 무너졌다. 1579년에 이르러서야 현지 사람들의 불심으로 성금이 모연돼 탑이 중건됐다. 이때 건축된 것이 8각 9층 전탑(벽돌탑)이다.

최고 전성기 시절 법문사의 사리공양은 유명했다. 북위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황제의 부처님 지골사리의 영봉은 9번 이뤄졌으며, 그 중 7차례가 당나라 시기 법문사에서 봉행됐다. 그만큼 지골사리 참배는 일반인들에게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귀중한 행사였다.

하지만 당나라 황제 의종은 법문사 진신사리탑 지하에 지하궁전을 만들고 그 안에 지골사리를 봉안하고 지하궁전은 밀봉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 후 부처님 지골사리는 전설로 전해져 중국인들에게 내려왔다.

지하궁전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최근에 와서다. 1976년 장마에 조금씩 붕괴되던 진신사리 전탑은 1981년 8월 폭우로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중국 정부는 1986년 탑을 완전 해체하게 된다.

해체와 함께 발굴을 시작한 중국 정부는 탑 아래 지하궁전을 발견한다. 이곳에서는 전설로 내려 온 지골사리 4과와 함께 백옥으로 정교하게 만든 아육왕탑, 금으로 만든 봉진신보살(捧眞身菩薩), 중국 여황제 측천무후의 자수치마, 온갖 금관과 은곽, 비취색 자기, 금으로 만든 석장(錫杖) 등 300여 점의 문화재가 쏟아졌다.

중국은 이곳을 1급 문화재로 지정하고 대대적 보수를 거쳐 1988년 진신사리탑을 중건하고 박물관 등을 새로 지어 일반에 공개했다.

사격을 대대적으로 일신한 법문사는 현재 포교와 승가 교육에도 매진하고 있다. 순례단은 법문사의 승가교육 현장도 탐방했다. 2007년 개원한 법문사 불학원은 전통 수행 공간 이외에도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습실 등 현대식 시설이 구비돼 있다. 현재 비구 학인 60명, 비구니 학인 80명이 수학하고 있다. 순례단이 찾았던 당시에는 방학 중이었지만, 일부 학인 스님들은 인터넷 강의 등을 들으며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740명의 구법승들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고, 생환해 돌아온 구법승은 63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8.5%에 불과했다. 공부를 마치고 나이가 들어 돌아오지 못한 구법승들을 감안해도 구법 여정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선종 순례를 통해 만난 대자은사, 흥교사, 소림사 등은 구법과 전법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동아시아 불교 발전의 현장이었다. 동으로 서로 다녔던 선지식들은 동아시아 불교를 변화시켰다. '법을 위해 자신의 몸을 잊는다'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을 선지식들은 그대로 보여줬다. 현대의 한국불교는 천년 뒤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곰곰이 되짚어볼 일이다. 〈끝〉

중국 서안=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소원을 이루는 크리스탈 칼라 테라피

소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실하지 못한 동기(부족함 때문)
② 타이밍이 맞지 않아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

8주완성

(색) 칼라의 힘

■ 1교시 :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칼라공부
붉은색 :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노랑색 : 예전의 두려움, 전생부터 짐져온 불안 초조(내면에 숨어있다)
■ 2교시 : 정확하고 재미있는 아주 쉬운 숫자로 보는 사주
■ 3교시 : 다가올 건강을 지적해주고 성형을 지적, 상담해 줄 수 있는 관상학

자기 자신을 먼저알고 자신의 기운을 먼저 바꾸고
상담해 주는 당신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상담문의 : 010-5658-2657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